

식탁 위 침묵

각진 식탁 위 포크와 나이프를 양손에 쥔 〈안 좋은 일〉
과 맞은편에 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눈
싸움을 하고 있다

안 좋은 일: 나도 사람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 좋은 일: 나도 사람이다

-오!-

좋은 작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 좋은 일을 혼자만
알고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택하는 방식

버섯이 자란다
믿을 수 있을까
냄새가 심해 기억은
화장실에서는 일기 쓰지 말자
비 오는 날 자동차 헤드라이트
비치는
길지 못할 빗금들
옷 없는 옷걸이
밥 먹지 않는 돌맹이
구르는
대머리
버섯은 죽은 나무와 쓰러진 나무 그루터기에 모여
자라는데
줄각 버섯은 왜
목숨을 끊으려 할까
버섯 전문가가 아닌 인간이 버섯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
버섯은 웬지
폭발을 잘할 것 같아
버섯과

나는
꿈꾼다
두 다리는 현실에서 아등거리는
눈썹
은
측면에서만 보인다
사랑이 식은 자는 옆모습밖에 보여 주지 않으니까
변기 위에서 일기를
쓰자
그림을 그리자
세포 모양의 슬픔
세포에게 실망하기
HEARTLESS BASTARDS
비 오는 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못 듣는 빗금의 비명에
게 실망하기
옷 입을 줄 모르는 옷걸이는
버섯의 지하 세계
고속 촬영이 희망을 보여 주었다
찌그러지는 버섯의 측면

버섯의 갓을 쓰고 울었다
발생하고 싶다
인간의 무성생식은 인간을 구원할까
버섯의 갓을 뒤집으면 슬프다
일기를 쓰는
무성적 존재에게도
화장지는 꾸준히 필요할 거야
갓속의 빈방에 갇힌 병균의 고독
버섯은 왜 눈썹이 없나

산에 난
잔불을 끄라
삼으로 흙을 파서
작은 물을 묻어 주어라
얼굴이
보이면
부드러운 흙으로 덮어라

프로타주

다음과 같이 달리의 일생을 요약해 볼 수 있다

1904년 출생 시도
1921년 출생 시도
1947년 출생 시도
1952년 출생 시도
1977년 출생 시도
1989년 사망

달리는 초록색 돌돌이 색연필을 꼭 쥐고 있었다
관 속에서 관 뚜껑 안쪽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하나는 엄지발가락 부근에 적혀 있다

종이를 접어 종이학을 만들 듯
그림자를 접어 학을 만든다
종이를 접어 종이학을 만들 듯
사물을 접어 비유를 만든다

하나는 두개골 부근이다

초현실주의는 불가능하며
현실이 현실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가능하다

한번 닫힌 관 뚜껑이 다시 열린다면 사람은 세계를 신뢰
할 수 없을 것이다

슬플 땀 돼지 엉덩이를 가져와요

돼지 엉덩이를 봐요. 그것은 연분홍입니다. 그것은 두루 뭉술하고 풍부합니다. 돼지의 엉덩이는 진열장 속 각진 상자에 또르르 대열 맞춰 앉은, 알록달록한 마카롱들과는 다른 세계에 속합니다. 돼지 엉덩이는 꿈꾸지 않습니다. 돼지 엉덩이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아 우는 엄마가 자꾸 나타나나요? 돼지 엉덩이를 소환하세요. 땀이 잘 나는 반들반들한 연분홍 엉덩이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으며 잘 참는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새벽 두 시. 만화방. 칠없는 반바지를 입은, 집 나간 똥보 아빠는 몸에 비해 비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후루루 짹짹 사발면을 먹어요. 만화책 속 주인공은 눈이 크고 바다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날마다 해가 뜹니다. 주인공은 정처 없는 밀짚모자를 쓰고 있고 어깨에는 앵무새가 앉아 전체적으로 멍청해 보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땀을 자주 흘리는 주인공은 친구가 없는데 친구가 많은 척하며 이것은 만화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돼지 엉덩이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성장 배경을 묻지도 않습니다. 돼지 엉덩이는 엉 엉 엉 울어지지 않고 자존심이 없어서 비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담 돼지 꼬리는?

뭔가를 친절하게 사양하는 듯한

망가진 마음을 숨기는 듯한

변기통 물이 미세하게 술렁이는 듯한

헤매는

돼지 꼬리는

몸집 큰 돼지가 땀을 흘리며 푹 푹 잘 때조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몸을

돌

돌

돌

말고 있습니다.